금수강산
8
주체113(2024)
루계 제420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4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8월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이어지는 전승세대의 넋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전쟁로병과 상봉한 청년대학생들이다. 청년들은 로병의 회상담을 들으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을 이어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사진 김성철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위대한 전승
71돐 성대히 경축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
7.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 71돐에 즈음하여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불멸할 영웅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은 모두가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이였으며 자기의 더운 피로 온 세상이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시대와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7.27이 있어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불패의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계승과 번영의 려정으로 빛날 공화국의 강국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실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렬사묘를 돌아보면서 국가존망을 판가름하는 가렬한 전화의 결전장마다에서 수령만세,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고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영웅들의 고결한 넋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렬사들의 묘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숭고한 경의와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백년, 천년으로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지가 축포의 뢰성이 되여 뜻깊은 7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오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를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력사적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오진우동지, 김일동지, 최춘국동지, 강건동지,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과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위대한 단결의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세상에 없는 기적을 낳을수 있음을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철비속에서 만고의 진리로 립증한 투사들은 오늘도 후손들의 마음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거연히 간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승리전통을 반제반미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비상히 증폭시킨것이야말로 렬사들이 조국과 혁명앞에 남긴 공적중의 공적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룰 때 7.27은 사회주의조선의 불멸의 상징으로, 필승의 대명사로 후세토록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렬사들의 넋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동지가 동행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대승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사에 고여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렬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학생들, 청년대학생들, 학생소년들과 함께 상봉모임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전승의 영예가 있기에 우리 국가는 전

승국만이 얻을수 있는 특유의 비상한 힘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나날에는 얻을수 없고 수백수천권의 책으로써도 깨우칠수 없었던 값진 정신적재부를 얻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장장 70여년을 전화의 그 정신으로 지키고 창조한것이야말로 조선혁명의 긍지높은 전통이고 특징이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사수하고 불멸의 영웅정신을 마련해준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은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진정한 애국자, 열렬한 혁명가의 귀감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대축전은 전승을 안아온 세대와 그 승리를 지켜 전쟁 못지 않은, 그보다 더 간고했던 년대들을 전설적인 기적과 비약의 년대들로 전환시키며 수호자의 사명을 다함에 용감해온 계승세대가 함께 받들어올린 영예의 절정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승세대의 정신은 우리를 영원히 강하고 위대한 인민으로 존엄떨치게 하는 불멸의 넋이며 그 줄기찬 계승으로 우리는 더 큰 승리, 더 값진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하면서 억년토록 계속될 승리의 력사를 위하여, 무궁할 전승의 우리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넋을 고인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전승세대의 위훈과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편집물이 방영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륙군상좌 리은룡, 해군소좌 유경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이 시각도 우리 조국의 남쪽국경선너머에서 핵전쟁도발에 발광하고있는 미제와 괴뢰한국군부깡패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분출시키면서 그들은 전쟁시기 적들에게 멸망의 공포를 주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근위부대의 무훈과 단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해군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세계해전사의 신화를 백배, 천배의 기적과 승리로 빛내일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성대히 거행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평양에서 거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전쟁로병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의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종합군악대가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 특색있는 기교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청소한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오만한 미제의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바꾸어놓으시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강국의 정상에 떠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이 개시되였다.

수령결사옹위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억척의 방탄벽이 되였던 현철해, 연형묵, 박송봉, 심창완동지를 비롯한 열혈충신들의 전시초상사진을 든 친위중대상징종대가 진두에서 나아갔다.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우리 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설적인 근위사단상징종대들이 불멸의 공훈이 깃든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였던 강건동지, 사단장이였던 최현동지와 리수복, 안영애영웅을 비롯하여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에 세운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상징종대가 1211고지방어전투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며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처넣은 자랑드높이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전쟁개시 72시간만에 서울을 해방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대전해방작전에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상징종대,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상징종대들의 전렬에는 전선사령관이였던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출신 맹장들의 모습이 빛났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방침과 작전적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랐던 항일혁명투사들이 근위부대들을 이끌었기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혁혁한 전과로 가득 채울수 있었음을 절감하며 관중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첫세대 지휘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령활한 기동전으로 전선을 종횡무진하며 위훈을 떨친 근위 제6보병사단상징종대와 동부산악지대에서 맹호사단으로 소문났던 안동최춘국제12보병사단상징종대가 《나의 고지》운동의 선구자 한계렬영웅과 강호영, 조순옥을 비롯한 육탄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나아갔다.

가렬한 전화의 그날 서울시가에 남먼저 돌입하여 적의 아성에 공화국기를 휘날렸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며 대전, 대구, 부산으로 육박했던 용맹한 땅크병영웅들도 전진하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상징종대에 불굴의 군상으로 서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의 체현자들인 공화국의 첫 영웅세대, 강철의 근위병들이 포화속의 청춘의 모습으로 빛나는 근위사단상징종대들에 손을 드시여 격려를 보내시였다.

행진대원들의 전투적열광과 관중들의 환호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으로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주문진의 기적을 창조한 근위 제2어뢰정대상징종대,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락엽으로 만든 근위 제56김지상영웅추격기련대상징종대가 도도히 진군해갔다.

수령의 명령이라면 하루밤사이에 백여리를 내달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강행돌파의 정신과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백배, 천배의 대적과 맞서 승전신화를 안아온 육탄정신, 결사전의 기개가 근위 리훈제18보병련대, 근위 제10보병련대, 근위 제14보병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의 포연서린 군기와 영웅들의 모습에 비껴있었다.

평양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근위 제19고사포병련대, 근위 제23고사포병련대의 혁혁한 군공을 체현한 상징종대들의 발구름소리도 높았다.

근위련대상징종대들의 뒤를 따라 적후전선과 싸우는 후방에서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고 수많은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특출한 공훈을 세운 내무성상징종대와 포화속을 뚫고 전시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친 철도병상징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이어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공화국정권의 수호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륙해공군종대들이 반미대결전을 강국조선의 승리로 통쾌하게 결속할 멸적의 기개와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영용성을 과시하며 보무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세월의 흐름에도 풍화되지 않고 세대의 교체에도 변함없이 련면히 이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체현자들인 무적의 륙군종대가 국방성군기와 대련합부대들의 군기를 추켜들고 위엄있게 행진해갔다.

그 뒤를 이어 인민해군과 하늘의 육탄비행대도 영용한 모습을 드러내며 보무당당히 지축을 울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무장마다에 만장약하고 혁명의 전위에서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는 새세대 근위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였다.

행진이 끝나자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부채살대형으로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올라 7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은 시원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한 주체조선의 70여년의 승전사를 만년대계로 이어가며 **김정은**시대를 새로운 승리와 영광, 번영의 시대로 빛내여나갈 군대와 인민의 억척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7월 27일 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 청년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무대화면에 성스러운 공화국기가 형상되였다.

설화와 노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높이 울린 신념의 노래들이 올랐다.

1950년 6월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결전에로 온 나라를 총궐기시킨 전인민적인 전선탄원가요, 원쑤격멸의 진군가인 《조국보위의 노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동방일각의 전초선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발발을 완강히 좌절시킨 전인민적애국항전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왔다.

위대한 영웅세대의 삶과 투쟁의 노래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불세출의 수령을 진두에 모시고 국가창건의 첫 기슭에서 가장 엄청난 도전과 처절한 참화를 이겨내며 조국사수전, 혁명보위전, 평화수호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청소한 요람기의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오만한 미제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하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무대화면에서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7.27의 기적이야말로 억만금으로도 바꿀수 없는 우리 조국의 제일가는 자산, 천추만대로 계승해야 할 고귀한 전통임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공연은 새시대 전승찬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지휘자와 주요배우들이 전쟁로병들에게 전체 출연자들의 존경의 마음이 담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우렁찬 환호가 또다시 세차게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날아올라 전승절의 열광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전인민적경사의 날로 뜻깊게 경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근로자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은 청년학생들

조국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을 전인민적경사의 날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백옥같은 충성과 경모의 마음들이 그리움의 대하가 되여 흘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반미대결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특출한 군사사상과 리론, 령활한 전략전술과 담대한 배짱으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청년전위들의 계승의 행진이 진행되였다.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령도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세계유일무이의 군사적기적을 안아오시고 영웅조선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각지에서 전쟁로병, 공화국영웅들과의 상봉모임이 진행되였다.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친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펼쳐져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평양과 각 도소재지들, 시, 군들에서는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와 근로자들의 체육유희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진행되여 온 나라에 명절분위기를 더욱 돋구었다.

각지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황해남도에서

개성시에서

소사하의 가을

(전호에서 계속)

마춘욱이네도 이 오발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에 루설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의 품성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은 나의 동무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점이였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을 나와 꼭같이 대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오면 사업비도 어머니가 대주었다. 그 사업비의 원천은 재봉일과 삯빨래질로 벌어들인 돈이였다. 목재소일군들과 인삼을 캐러 다니는 계절로동자들이 광목을 끊어가지고 와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옷을 해달라고 자주 주문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의 옷을 해주고 하루에 70~80전씩 벌었다. 일이 잘되는 날에는 1원도 벌었다.

비록 생활은 궁색하였지만 어머니는 돈을 쓰는데서 린색하지 않았다. 그저 쌀을 사는데 필요한 돈과 타고장으로 갈 때 쓸 로자와 집세만 계산해놓고는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이 오면 밀국수 몇근에 돼지고기 몇근을 사다놓고 교즈나 수제비국을 만들어먹이거나 사업비로 쓰라고 하면서 저축했던 돈을 다 내놓군 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어머니, 성주네도 생활이 풍족치 못한데 밑천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주면 세간살이는 어떻게 해가시자구 그럽니까?》 하고 걱정하면 어머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동무들이 몇달씩 집에 와있어도 절대로 언짢아하지 않고 시종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었다. 그러기에 만주에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들가운데서 우리 집에 며칠씩 와있다가 간 동무들은 나의 어머니를 《성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일평생 혁명가들의 밥을 해주다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적에도 애국자들의 시중으로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하고 바쁘게 지내던 어머니였다. 림강에서 살 때에는 매일 밤 밥을 하였다. 우리가 밤에 이불을 쓰고 잠을 청할 때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어느때라고 편안히 잠을 자는가고 롱을 하며 집으로 쓸어들어와 웃방에서 자군 하였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일어나서 밥을 짓군 하였다.

어머니는 혁명가들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혁명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활동을 시작한것은 무송에서 살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만녀자교육련합회 백산지구회에 들어가서 녀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부녀회사업도 하였다.

어머니가 혁명의 방조자로부터 직접적인 담당자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아버지나 우리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리관린의 영향 또한 대단히 컸다고 말할수 있다. 그가 우리 집에 와있을 때 어머니를 남만녀자교육련합회사업에 인입하였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될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줄기차게 관통한 넋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수 있는 육친적권리마저 희생시켰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도 세우지 못한채 토기점골을 떠났다. 그 묘소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진것은 해방후였다. 안도현 인민들이 어머니를 잊지 못해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삼형제의 이름까지 새겨넣었다.

유언대로 어머니의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조국이 해방된 후에야 만경대에 이장되였다.

나는 조국에 개선한 다음에도 한동안 이국땅에 묻혀있는 부모들의 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시국이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때문이였다. 우리가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보낸 만주의 산야에는 나의 부모들뿐 아니라 나와 함께 혁명의 불바다속을 헤치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유골이 수없이 묻혀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간 자녀들이 있었다. 희생된 전우들의 유해를 찾아오고 그들이 부탁하고간 자식들을 해방된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들의 분묘를 옮겨올수 없다는것이 나의 결심이였다.

그런 때에 장철호가 찾아와서 부모들의 분묘를 고향에 옮겨와야 한다고 나를 설복하였다.

천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할테니 장군은 만경대에 나가서 좋은 땅을 골라 미리 묘소나 잡아두라는것이였다. 만주시절의 연고자들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묘를 아는 사람은 장철호 한사람밖에 없었다. 그가 그 묘들을 옮겨오느라고 말없는 수고를 많이 하였다.

내가 무장투쟁을 할 때 적들은 우리 부모들의 묘소를 파헤치려고 무던히도 검질기게 돌아쳤다. 그러나 무송과 안도의 인민들은 해방되는 날까지 적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묘를 성실하게 지키고 관리하였다.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스승인 강제하선생은 1년에 두번씩 한식과 추석명절이 올 때마다 제밥을 차려가지고 처자들과 함께 양지촌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나는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되고 가장이 되였다. 그러나 혁명은 나로 하여금 가장의 구실도 보호자의 역할도 할수 없게 하였다. 갈대가 처량하게 설렁거리는 소사하골짜기에 설음에 우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거치른 북만땅을 향해 기약도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다.

(끝)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 안아오신 조국해방

항일혁명전쟁은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여 벌린 가장 간고한 투쟁이였다. 국가적인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당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는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항일혁명전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인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력량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신 그이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길,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독창적인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주체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이 나아갈 진로에 대하여 명시하신 그이께서는 로동자, 농민은 물론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반일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세력을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결속시킬데 대하여서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광범한 대중을 각이한 형태의 조직들에 망라시켜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였으며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중적지반, 전민항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전민항전의 위력을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중엽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정력으로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강령, 규약을 하나하나 작성하시며 전체 조선민족을 망라할수 있는 조직의 결성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주체25(1936)년 5월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와 교조, 파쟁으로 얼룩진 수난의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는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이는 사실상 전민항쟁선언이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은 전체 조선민족을 일떠세우는 불길로 온 나라에 타번져갔다.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을 조국해방성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사선의 고비를 넘고넘으시였다.

그이께서 주체26(1937)년 9월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소조를 친솔하시고 단행하신 국내의 신흥지구에로의 진출은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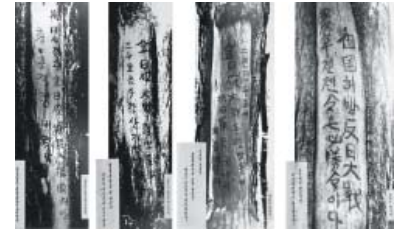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9월하순 신흥군 가평면 풍상리(현재의 영광군 자동리) 삼발산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3대로선과 혁명적구호 《모든 힘을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는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도처에 120여개에 달하는 무장봉기조직들이 무어져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으며 이것은 일제의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까지 세력을 확대한 항쟁조직들의 맹렬한 활동도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주체34(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달하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에 따라 총공격을 개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노도와 같은 진군에 호응하여 전국의 무장봉기조직들은 일제히 최후의 돌격전에 떨쳐나섰다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봉기조직들은 적배후교란작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동시에 인민들을 항쟁의 마당으로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참으로 조국의 해방은 혁명의 초행길에서부터 자력독립, 자력해방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주체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여 거족적인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합, 전민항전의 숭고한 대경륜이 안아온 력사적승리였다.

글 본사기자 박영철

조국해방위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구호문헌들의 일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8월 25일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애민의 장정

8월 25일, 이날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안고있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

근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약소국으로 국제무대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날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올라서게 된데는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문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가르치심은 그이의 혁명무력건설구상이 집대성된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군건설, 국방력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강력적지침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특히 1990년대중엽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혁명무력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가를 더욱 체감할수 있게 한 나날이였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들고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침략전쟁연습과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사실상 우리와 적대세력들사이는 선전포고나 총포성이 울리지 않았을뿐 전쟁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거기에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으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택하신것은 선군의 길이였다.

총대가 굳건하면 그 어떤 모진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수 있고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끄떡없다는 신념과 배짱으로 그이께서는 이 시기 선군정치가 군사중시, 총대중시사상을 구현한 새로운 정치방식임을 선언하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주체85(1996)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351고지를 찾으시려 할 때 동행한 일군들은 적초소까지의 거리가 불과 1 200m밖에 안되는 고지에 오르시는것을 극력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351고지 전방감시초소에까지 오르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군인들의 생활정형을 료해하시고 적들의 침략적기도에 대처한 전략전술들을 완성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밝혀주시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넘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넘으신 철령의 굽이굽이, 미끄러지는 차를 어깨로 미시며 한치한치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자그마한 쾌속정으로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으시였던 초도의 배길…

강추위도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 나날 그이께서는 쉬임없이 이어가는 선군의 길에서 힘이 부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니 이 길에서 순간도 멈춰설수 없다, 인민들은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지만 내가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생각하니 쉬고싶어도 쉴수가 없다고 하시였다.

자신께서 고생한것만큼 조국의 안전이 수호되며 인민이 잘살 날이 앞당겨진다는 이러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절날, 휴식날 지어 자신의 생신날에도 쉬지 못하시고 1년 365일을 선군장정의 길에 계시였다.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애국헌신의 장정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을 박차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올라선 국력, 만수대거리와 개선청년공원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기념비적창조물, 전국적규모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 대규모토지정리 등 세상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경이적인 성과들은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으시고 그 위력으로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발현된 가장 숭고한 애국애민의 길이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나가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중요기념일때마다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누빈 최정예열병대오와 절대병기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과시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백과 창조본때는 그이의 령도가 얼마나 경이적인 기적들을 낳는가를 만방에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혁명무력강화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광

청년전위, 그 부름앞에

청년들은 나라의 얼굴이며 미래라고 한다.

그래서 해당 나라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라고 하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져 수도는 물론 전국이 변모되여가고있다.

이 놀라운 변천은 청년이라는 부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백두산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도,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된 삼지연시에도 우리 청년들의 위훈이 깃들어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청년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구역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 웅근 하나의 특색있는 새 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위거리건설을 또다시 맡아안았다.

전국각지에서 무려 10여만명의 청년들이 수도건설에 탄원해나섰고 만사람의 뜨거운 격려와 바래움을 받으며 전위거리건설장으로 모여왔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착공식장에서 모두다 조선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나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청년들은 새로운 평양번영기를 열어놓기 위해 말그대로 온 한해를 줄달음쳐왔다.

수십개 호동의 고층, 초고층살림집을 일떠세우는것은 건설공사경험이 없었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힘겨운 과업이였다. 하지만 새 거리의 웅장한 실체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열의드높이 공사장이 들썩하게 경쟁바람을 일으켰다.

우리 려단의 청년건설자들도 60층, 40층초고층살림집건설을 맡았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기둥철근조립방법을 비롯하여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들이 창안도입되였다. 이 나날 한층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80여시간, 다음에는 40여시간 또 다음에는 17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존의 기록이 끊임없이 갱신되였다.

한층한층 골조가 완성될수록 작업조건은 더욱 불리해지고 삼복철의 무더위와 때없이 쏟아지는 폭우 등으로 인한 육체적부담도 컸지만 청년건설자들은 부모형제가 살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려간다는 심정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갔다.

실로 전위거리건설의 하루하루는 우리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하루하루였고 사상정신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조국앞에 보여준 나날들이였다.

청년들의 창조적적극성이 발휘되는 속에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제작하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시공의 속도와 질을 담보할수 있는 효률적인 공법들을 내놓는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기능공력량이 건설초기의 10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수도건설의 보람찬 1년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전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에 또다시 과시하였다.

청춘의 위훈은 건설장에서만 발휘된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의 위훈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은 우리 청년들은 공장과 농촌, 광산과 탄광, 체육과 과학연구부문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새기고있다.

이렇듯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에 전위라는 긍지를 안고 청춘의 자욱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청년들이 있기에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 려단장
조혁철

우수한 차음료들을 더 많이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차를 즐겨 마셔왔다.

약리적가치가 높은 나무열매나 뿌리, 잎 등을 말리워 우리거나 달여 만든 인삼차, 결명자차, 오미자차 등은 조선민족이 널리 마셔온 차이다.

오늘날 조국인민들은 이 전통적인 차와 함께 황해남도 강령지방에서 재배되는 차나무잎으로 만든 은정차를 즐겨 마시고있다.

은정차는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리에 위치하고있는 은정차음료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있다.

물정제공정과 차우림 및 차려과공정 등 생산공정전반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는 록차, 홍차, 철관음차, 사과록차, 레몬홍차, 우유홍차, 배철관음차 등이 생산되고있다.

이곳 생산작업반 반장 김영애의 말에 의하면 은정차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방지하고 심장활동을 유연하게 해주는것과 함께 로화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공장에서는 품질이 높은 차음료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이미 세계적인 차음료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차음료생산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그것을 부단히 갱신해가고있다. 그리고 차잎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의 추출방법과 물려과 및 정제공정 등을 보다 개선해가고있다. 이와 함께 차를 오래동안 보관하면서도 차의 색갈과 특성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진전이 이룩되고있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음료들은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한 건강음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지배인 렴선영

앞으로도 우리는 인민들이 반기고 선호하는 품질이 높은 차음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갈것입니다.

단청공예사로 근 40년

평양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는 근 40년을 한직종에서 일해오고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단청공예사인 정길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이곳에 내짚은것은 지금으로부터 39년전이였다.

17살 홍안의 청년들이 그러한것처럼 당시 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부문에 배치받은 동창생들 못지 않게 긍지롭고 보람차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이 흘러감에 따라 그의 이러한 생각은 점차 허무감으로 바뀌였다. 매일 하는 일이라야 옛 목조건물에 칠감이나 바르는것이였다. 차츰 그는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게 되였다.

이런 그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준 사람이 있었다.

민족문화유산보호부문의 오랜 년장자이며 기능공인 반장은 어느날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일을 단순히 옛 건축물에 색감을 바르고 무늬를 그리는것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족의 우수성을 지키고 빛내이는 애국의 길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의 목조건축장식미술에서 오래전부터 리용되여온 단청무늬장식과 거기에 깃든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에 대하여, 국가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이날 정길은 반장의 말에서 큰 충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맡은 일에 달라붙었다.

초지에 단청무늬를 그려가며 섬세하고 정교한 수십가지의 무늬들을 익히였고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과 기술, 높은 창작수법들을 터득하기 위해 기능공들을 따라다니며 부지런히 배웠다.

애쓴 보람이 있어 그는 입직하여 1년만에 단청무늬를 섬세하게 또 재빠르게 그려내는 능력과 솜씨를 소유하게 되였다.

한편 그는 인민대학습당과 평양미술대학을 찾아다니며 단청미술과 관련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였고 기술기능수준도 부단히 높여나갔다.

땀을 들일수록 충실한 열매가 달리듯이 련광정, 칠성문, 을밀대 등 평양시안의 여러 문화유적들에 대한 수복과 보수공사가 제기될 때마다 그는 터득한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 나날 정길은 고급기능공으로 떠받들리게 되였고 그에 대한 집단의 믿음과 사랑도 더해만 갔다. 이것은 그에게 삶의 긍지와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해주었다.

단청공예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한 그는 수도의 력사유적들뿐 아니라 금강산의 신계사와 개성시의 남대문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 문화유적들에 대한 수복공사에서도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하지만 그가 한직종에서 일해온 근 40년, 이 나날은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간 나날이 아니였다.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생기니 더욱 그러하였다. 단청을 수복하느라 지방에 몇달, 지어 1년 남짓한 기간 집을 떠나 생활하는 남편을 두고 안해는 여간만 야속해하지 않았다. 정길도 그런 안해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남편으로서 참으로 미안하였다. 하지만 자기가 걷는 길이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와 전통을 빛내이고 후대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애국사업으로 여긴 그였기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새로운 일감이 기다리는 곳으로 자진하여 떠났다.

금강산 신계사의 단청장식

대성산 광법사의 단청장식

그에게는 명예칭호나 높은 국가수훈도 없다.

그렇지만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그는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조국에서는 애국자라고 부르고있으며 이들이 있기에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들이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뛰여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어린이들

지난 3월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시에서 제33차 국제어린이 및 청소년예술작품축전이 열리였다. 로씨야, 중국, 몽골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 000여명 어린이들이 참가한 축전에서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아래에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한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민족기악부문의 1등수상자

리다정

리다정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약하다.》, 《애되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다정이는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어느모로 보나 여리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그러나 소해금을 연주하는 그의 유연하면서도 박력있는 률동, 선률에 따르는 민활하면서도 정확한 표현능력, 그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쾌활한 성격과 강한 인내력을 보고서는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다정이의 성장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는 김정아교양원은 《다정이의 음악적재능과 성격적특질은 천성과도 련관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교육을 잘 받은데 기인된다.》라고 말하였다.

타고난 음악적재능을 가진 다정이는 4살때 누가 배워주지 않았어도 TV와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를 곧잘 따라불렀다. 그런 딸자식을 보면서 부모들은 다정이에게 음악공부를 시킬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고 한다.

다정이는 유치원에서의 음악교육을 받게 되였다.

리듬감각이 좋고 활동성이 강한 다정이의 남다른 자질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김정아교양원은 그에게 민족악기인 소해금을 배워주기로 하였다.

타고난 음악적재능을 지닌 다정이는 소해금을 처음 잡았을 때부터 연주자세가 좋았고 음정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활도 편안하게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그 나이또래의 어린이들은 배워준 내용을 인차 잊군 한다. 하지만 다정이는 배워주는것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정확히 기억하군 하였다.

그의 이러한 특질을 더욱 계발시키기 위하여 김정아교양원은 수업후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시하였다. 이 과정에 차츰 다정이의 인내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유연성문제도 더욱 세련되여갔다.

이렇듯 다정이의 예술적기량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다듬어지고 나날이 세련되여갔다.

제33차 국제어린이 및 청소년예술작품축전에 참가하여 부드러운 음색과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일관된 소해금독주 《즐거운 무도곡》을 무대에 올린 리다정어린이는 축전의 시작과 마감에 진행된 종합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여 민족기악부문에서 1등상을 쟁취하였다.

현재 리다정어린이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소학반에서 공부하고있다.

예술상을 받은 꼬마가야금수

박신영

두해전 어느날 경상유치원에서는 새로 들어온 어린이들에 대한 청음 및 시창능력판정이 진행되였다. 그때 리은심교양원은 박신영이가 다른 어린이들보다 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하는것을 보게 되였다. 예술인가정인것으로 하여 풍금을 얼마간 배웠다는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 교양원은 신영이를 풍금앞에 앉혀보았다. 건반우를 비교적 유연하게 오가는 자그마한 손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육체적준비로 보나 음악적감수성으로 보나 신영이에게 발현악기를 배워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부모들과의 토론끝에 민족악기 가야금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시절에 가야금연주의 기초를 터득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신영이는 밝고 탄력있는 음질을 살릴수 있는 롱현과 같은 가야금고유의 다양한 연주기법들을 짧은 기간에 터득하였을뿐 아니라 작품의 양상에 따르는 감정표현도 생동하게 할줄 아는 꼬마가야금수로 점차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차례의 공연들에서 학부형들과 교양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제33차 국제어린이 및 청소년예술작품축전에서도 신영이는 안땅장단의 박력있는 리듬을 타고 민요 《나는야 꽃봉오리》의 선률을 가야금으로 잘 형상하여 전문가들과 심사자들을 놀래웠다.

높은 연주기량으로 경연에서 예술상을 수여받은 꼬마가야금수 박신영어린이도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소학반에서 재능의 나래를 꽃피우고 있다.

이외에도 음악경연 7살-10살부류에서 피아노를 훌륭히 연주한 허예령, 박차진어린이들과 민족악기를 재치있게 연주한 리예권어린이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차진

리예권

어린이들이 안겨준 여운

제33차 국제어린이 및 청소년예술작품축전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공연을 감상한 축전심사성원들과 관람자들, 각계인사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축전의 주최자는 《조선어린이들의 뛰여난 예술적기량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조선어린이들의 재능은 축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토로하였다.
축전심사성원들과 관람자들도 조선의 어린이들이 축전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음악경연에서 피아노와 민족악기를 연주한 어린이들은 축전참가자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그들의 연주수법과 기량은 같은 부류 참가자들속에서 가장 우수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의 우월한 교육제도와 조선어린이들의 뛰여난 재능에 대하여 이미 전부터 잘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객석에서 열렬한 박수갈채와 경탄이 터져나온것도 바로 조선어린이들의 공연이라고 하면서 이번 축전에 조선의 어린이들이 참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상식

관서8경

관서8경은 관서지방(조선봉건왕조시기의 평안도지방)으로서 오늘의 평양시,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의 대부분)에 있는 8개의 명승지를 말한다.
관서8경에는 평양의 련광정, 성천의 강선루, 안주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 녕변의 약산동대, 동림의 동림폭포,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이 속한다.
련광정은 평양의 대동강가 덕바위우에 있는 루정으로서 높은 건축술이 주변의 자연경치와 잘 결합된것으로 하여 이름났다.
녕변의 약산동대는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와 바위들, 울창한 수림과 철따라 피여나는 갖가지 꽃들 그리고 유적들로 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풍치를 나타낸다.
청천강물우에 둥실 떠있는 한척의 배인듯 안겨오는 안주의 백상루, 루정에서 주위를 보면 안주의 백가지 경치가 안겨온다.
강계의 인풍루는 장자강과 그 지류인 북천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인풍루에서는 소나무, 잣나무가 우거진 랑림산줄기의 산수풍경이 한눈에 안겨오며 달밤의 풍경이 유명하다.
이밖에 성천의 강선루, 의주의 통군정, 동림의 동림폭포, 만포의 세검정을 비롯한 명승지들도 제각기 경치와 특색을 가지고있다.
관서8경은 주로 아름다운 큰 강들이 굽이쳐흐르는 기슭의 벼랑, 산, 도시, 옛 건물 등이 잘 어울린 강변경치가 대표적이다.

* * *

전수능력이 높은 실력가들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인공지능기술학부 프로그람공학강좌에서-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인공지능기술학부 프로그람공학강좌의 교원들이 최근 교육구조를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줄수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지난 기간 강좌의 교원들은 자질향상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첨단과목교재집필에 총력을 집중해나갔다. 교원들속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사물인터네트기술을 소유할것을 지향하고 그를 위한 기초기술로서 구름계산체계와 대자료수집 및 분석기술, 지능결심채택 등의 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교육실천적조건에 맞게 응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연구완성하여 교육의 실용성을 높이였다. 이 과정에 교원 김경남은 《구름계산》, 《블로크사슬》과 같은 첨단과목교재들을 집필하고 강의에 실천하였다. 담임교원의 실력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수되여 맡은 학급전원이 학위소유자들로 자라났다. 지난해 강좌에서 다국어소유자학급이 나오고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들도 20여명이나 배출된것은 실용적인 교육이 가져온 성과들중의 하나이다.
강좌에서는 교육내용과 과학연구를 밀착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 전공관련과목들에 연구형교수방법, 연구형학습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해나가고있다. 모든 교원들이 여러 연구과제들을 직접 담당하면서 강좌를 하나의 두뇌경쟁마당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여기에 학생들을 적극 망라시켜 정보기술제품개발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교육과 연구를 밀착시켰다. 이렇게 하니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 나날 강좌에서는 어느 한 어구종합공장의 종합업무관리체계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람들도 개발하였다.
불과 9명밖에 되지 않는 강좌이지만 교원들모두가 새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들이며 4개 나라 언어에 정통한 박인혁을 비롯하여 7명의 교원들이 다국어소유자들인것으로 하여 대학적으로 손꼽히는 실력가집단으로 인정받고있다.

새 교재작성에 지혜를 합쳐간다.

오늘 강좌는 《최우수정보기술개발집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우고있다.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첨단에 도전하려는 야심만만한 교원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프로그람강의를 진행한다.

고향소식

력사유적과 인삼으로 유명한 고장

개성시 민속거리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력사유적이 많고 장수불로약으로 널리 알려진 개성고려인삼으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얼마전 개성시를 찾았다.

이곳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살고있는 전상훈동포의 조카인 현청일이 살고있었다.

우리를 태운 차가 개성시에 들어서니 차창밖으로 송악산의 웅장한 자태가 안겨들었다. 마치 만삭이 다된 녀인이 누워있는것처럼 보이는 송악산은 세월의 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있는 력사의 증견자인듯싶었다.

이곳에서 만난 시의 일군인 홍도순은 개성시에는 왕건왕릉과 남대문을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것이 10여개나 된다며 우리를 고려태조왕이 안치되여있는 왕건왕릉으로 안내하였다.

왕건왕릉은 주체83(1994)년에 훌륭히 개건되였다.

시일군은 왕건왕릉만이 아닌 개성시의 모든 력사유적들이 옛 모습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고려31대왕인 경효왕릉과 고려충신인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표충비, 고려의 왕궁터였던 만월대와 개성성 특히 고려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청자기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등을 돌아보며 민족사의 유구함과 선조들의 재능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

하지만 이 력사유적유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깊이 알게 된것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일제가 이곳의 많은 력사유적들을 파괴하고 문화유산들을 략탈하였는데 경효왕릉에서만도 귀중한 유물들을 10여대의 수레에 싣고 달아났다.

이어 우리는 970년에 세워졌다는 관음사와 여기에 있는 대웅전, 승방, 관음굴 등을 돌아보았는데 이 모든것을 김정식, 김은숙부부가 관리하고있었다.

인적드문 산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력사유적들을 관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받들려는 진정이 차있었다.

시에는 이들과 같은 부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의 애국심에 감복하며 만월동 45인민반에 사는 전상훈동포의 조카 현청일의 집을 찾았다. 66살인 현청일로인은 반가워하며 삼촌이 편지로 소식을 보낼 때마다 고향의 력사유적소리, 인삼이야기를 많이 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개성의 력사유적을 따라가느라면 민족이 겪은 수난사에 대해 절감하게 되는데 인삼도 마찬가지이라고, 일제는 개성사람들에게는 인삼이 맞지 않는다는 요언까지 내돌리며 인삼을 략탈해갔다고,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마저도 인삼 한번 써볼 생각을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가 해방된 그날부터 개성사람들에게 새 생활이 시작되고 력사유적도, 인삼도 빛을 보게 되였다며 인삼에 대한 자랑을 하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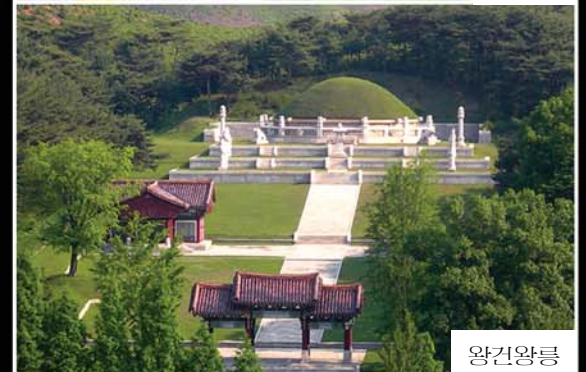
…개성고려인삼은 말그대로 사람처럼 생겼다. 튼튼한 총각삼이 있는가 하면 아릿다운 처녀삼도 있는데 갓 시집간 녀인이 총각삼을 먹으면 아

남대문

왕건왕릉

개성성

경효왕릉

고려성균관

들을 낳고 처녀삼을 먹으면 곱게 생긴 처녀애를 낳는다는것이였다.

로인은 개성의 력사유적과 인삼자랑을 삼촌을 비롯한 동포들에게 잘 소개해줄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그의 부탁을 꼭 들어주리라 생각하며 우리가 들린 곳은 농업과학원 인삼연구소였다.

각이한 크기의 인삼들이 자라는 시험포전에서

숭양서원

관덕정

안화사

옛 우물과 북안거리

삼계탕

아득히 먼 옛날 오랜 병환으로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를 꼭 제손으로 일으켜세우리라 결심한 아들이 간난신고끝에 산삼 한뿌리를 캐여 어머니에게 삼계탕을 대접하였다.

그때로부터 삼계탕은 자식의 지극한 효성이 깃든 탕이라고 하여 《효성탕》이라고도 불리우고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삼계탕, 닭의 배안을 헤쳐보면 그안에는 먹음직스러운 대추와 마늘이 드문드문 박혀진 찹쌀밥에서 인삼향기가 물씬 풍겨나고있다.

기름기가 찰찰 도는 찹쌀밥과 맑은 국물을 떠먹은 후 닭고기의 뼈를 추리며 연한 살을 씹는 맛 또한 어디에 비길수 없다.

소장은 6년생인삼 한뿌리를 보여주며 이 인삼을 세계가 인정하고있는데는 개성지방의 특유한 기후풍토와 관련되여있다고, 언제인가 외국인들이 인삼을 가져다 자기 나라에서 심어본적이 있었는데 그 인삼은 개성고려인삼과 생김새는 비슷하였지만 약효능은 대비도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개성지방이 인삼재배의 적지라는데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그의 말속에는 태를 묻고 자라난 고향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넘쳐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의 종업원들이 생산하는 인삼제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있는데 대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주는 말속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인삼자랑을 들으며 인삼제품들이 생산되는 공장을 돌아본 우리는 《인삼박사》로 불리우는 김현우로인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로인은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인삼을 재배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자기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로인은 인삼재배전통이 오늘도 이어져 이 마을에서만도 많은 세대가 인삼을 키우고있다고, 자기 가정에서는 여러 계기때마다 삼계탕과 인삼닭곰을 만들어먹군 하는데 그래서인지 모두가 건강하다고, 마을주민들도 인삼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이 하나의 생활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먼 옛날부터 명물로 이름났지만 통치계급과 침략자들의 치부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개성고려인삼, 오늘은 이 고장사람들만이 아닌 조국인민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나라의 특산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송악산을 바라보는 인삼만이 진짜인삼이라는 이 고장 격언에 이끌려 우리는 송악산에 올랐다.

왕건왕릉이며 경효왕릉, 만월대 등 력사유적들이 멀리 보이고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과 고려인삼술공장을 비롯하여 인삼이라는 이름을 단 공장들과 포전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가다듬게 되였다.

개성의 이 모든것이 조국이 있어 지켜지고 인민의 나라에 자리잡고 이 강산에 뿌리를 두었기에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특산으로 되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 확신이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개성시 장풍군읍 101인민반 최춘명(왼쪽으로부터 두번째)의 가정을 찾아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보낸 즐거운 나날들을 추억하며 자식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개성시종합병원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고려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개성시종합병원 고려치료담당 부원장 최유철(가운데)과 의료일군들

개성학생소년궁전 레스링소조에서

전도유망한 체육선수들로 자라나기 위해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고향땅의 푸른 숲을 가꾸어간다.

장풍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공훈산림공 류시옥녀성(가운데)과 그의 자식들

토장의 맛과 향기그윽한
고려된장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동포잡지 《금수강산》의 《민족의 향기》란의 글줄들을 보다 흥미로우면서도 이채롭게 수놓을 하나의 이야기가 간직되여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목에 떠올린 고려된장술에 대한 소개에 앞서 얼마전 대동강식료공장 최현실 기사장에게서 취재한 그 이야기부터 옛말삼아 적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중국의 어느한 마을에 막걸리를 잘 만들어 그 주변마을들에도 소문이 난 조선족녀인이 살고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정들마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메주덩어리(찐 낟알쌀 또는 낟알가루에 메주균을 섞고 균을 자래우는 장원료)가 그 집 아래목의 벽에 걸려있었는데 어느날 일이 안될세라 뜨뜻한 아래목에서 한창 숙성중인 막걸리항아리에 떨어졌습니다.

막걸리항아리에서 메주와 막걸리가 합쳐져 발효되였으니 막걸리맛이 좋을리 없었습니다. 쩡한 막걸리맛은 어디 가고 텁텁하기만 하여 내다 팔기는커녕 조금 마시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녀인은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워 할수없이 집에서 키우던 황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소는 그전에는 3일동안이나 갈던 밭을 하루도 안되는 사이에 갈아엎으며 용을 쓰는것이였습니다.

녀인은 막걸리에 메주가 합쳐진것이 바로 비방이라고 생각하고는 심한 관절염으로 3년째 바깥출입을 못하던 아들에게도 그 된장막걸리를 먹였습니다. 그가 예견했던대로 아들은 인차 병을 털고일어나 대지를 활보하였습니다.

녀인의 아들은 후날 어머니가 우연히 만들었던 그 된장막걸리를 꼭 성공시켜 새로운 음료를 만들리라 마음다지였습니다.

먼 후날 그는 메주장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는 한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에 된장절을 내오는 사업도 하였으며 수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메주장에 술을 배합한 된장술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에 살고있는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사장 리동춘동포입니다.

주체98(2009)년 그가 만든 된장술은 중국전통술인 빼주에 중국 연변에서 담근 된장을 넣은 술로서 메주장의 떫은 맛과 빼주향내가 짙었습니다.

동포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콩의 원산지이고 메주장의 본산지인 고국에서만 진정한 조선식된장술을 만들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고국에서는 그의 소망을 헤아려 국주생산으로 유명한 대동강식료공장에서 된장술을 연구완성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2019년부터 기사장 최현실을 비롯한 공장기술집단은 된장술연구에 달라붙게 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된장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건강식품의 하나로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효소와 함께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어주는 리놀산, 심장병에 특효인 리제레시틴을 비롯하여 생리활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된장의 영양성분을 술을 통하여 몸에 흡수시키는 연구사업은 술맛과 된장맛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난점으로 하여 또 개성고려인삼과 송이버섯, 대추 등의 약성분을 최대로 내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공장기술집단은 여러해에 걸친 연구과정을 통하여 된장, 띄운콩, 찹쌀과 함께 개성고려인삼, 송이버섯, 대추 등의 유용성분들을 추출하고 그것들의 리상적인 배합비률을 찾아내였습니다.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고려된장술의 제조법을 끝끝내 완성한 그들은 대량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조국에서 개발생산하였다는 의미에서 고려된장술로 명명된 이 음료는 은근한 토장향기의 맛과 진귀한 고려약재들의 약효능이 잘 어울려있습니다.

술병도 토장색갈처럼 짙은데다가 술색갈도 토장빛이 은근하게 나는 이 술은 애주가는 물론이고 술이라면 도리머리를 하던 녀성들의 호기심도 자아내고있습니다.

조국에 《적게 마시면 약주요, 많이 마시면 망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담고있는 의미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고려된장술은 술을 무독화해주는 신기한 작용을 합니다.

지금도 조국의 일부 가정들에서는 남편이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안해가 꼭 뜨끈한 토장국이나 된장을 물에 풀어 대접하여 인차 깨도록 하고있는데 고려된장술을 마시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본인은 물론 주부들의 《고민》거리도 풀어줍니다.

필수아미노산과 필수미량원소, 광물질 등이 풍부히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은근한 된장맛과 조화로운 감칠맛으로 하여 마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기능성술인 고려된장술의 개발은 술제조업에서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가진 고려된장술은 지난해부터 조국의 급양망, 상업망들에서 봉사하여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앞으로 해외에도 수출하게 됩니다.

술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동서고금의 갈피에는 술의 종류와 가지수가 많지만 고려된장술과 같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풍습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키려는 해외동포들과 국내의 양주기술자들의 마음이 깃들어 민족의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는 이런 《합심주》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럼 동포여러분이 앞으로 조국에 오면 고려된장술의 진미를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글 본사기자 련해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콩발효된장과 찹쌀의 침출액을 배합하여 만든 이 술은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술입니다.

은근한 된장맛과 조화로운 감칠맛으로 하여 마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의 사망 22돐 추모행사참가자들이 동명왕릉을 돌아보았다.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동명왕릉을 찾아서

력사유적들은 류달리도 관광객들 누구나의 관심을 끈다.

조선민족유산국제려행사 관광객들의 걸음에 맞추어 우리의 기행길도 동명왕릉으로 이어졌다.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동명왕릉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를 세운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으로서 조국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평양시내를 벗어나 기세좋게 질주하던 뻐스는 마침내 동명왕릉으로 향한 직선도로에 들어섰다.

뻐스가 멈춰서자 우리를 마중나온 강사 김혜성이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였다.

그는 관광객들을 둘러보며 누구나 동명왕릉지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가슴이 시원한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일대에 소나무가 특별히 많아 송진향기로 가득찼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모처럼 오셨을 때 이 맑고 청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십시오. 지난 시기 동

동명왕릉개건기념비

명왕릉을 찾아왔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지구상에 이곳처럼 공기가 맑은 곳은 더는 없을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윽고 그는 주차장입구에 있는 하마비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한자로 《대소인원개하마》라고 쓴 비에는 큰사람, 작은 사람할것없이 말에서 내리라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여기서부터는 발걸음도 공경스럽게 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를 왕릉으로 이끌어가며 강사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창건한 동명왕을 매우 숭배하고 신적인 존재로 여기였으며 그의 무덤도 특별히 잘 꾸리였습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그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는데 5세기중엽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풍습에 따라 시조왕의 무덤도 현재의 위치에 옮겨왔습니다. …》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대는 예로부터 평야지대에서 사는 짐승들뿐 아니라 산악지대에서 사는 짐승들도 나다니여서 나무랄데 없는 사냥지대라고 한다. 지금 동명왕릉주변의 약 40정보나 되는 소나무숲은 수백년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것이라고 하였다. 소나무숲이 마치 고구려시조왕릉을 향해 절을 하는듯한 모양을 이루었는데 이 류다른 자연현상은 그 누가 억지로 지어낸것도, 초자연적인 힘이 만들어낸것도 아닌것으로 하여 수많은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있다는것이다.

지난날 동명왕릉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해 여지없이 파괴되여 력사밖으로 점차 멀어지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손색없이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친히 붓을 드시고 《東明王陵改建記念碑》(동명왕릉개건기념비)라는 글발을 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명왕릉을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력사유적으로 훌륭히 개건하기 위해 이름있는 학자들로 학술연구를 하도록 하시고 왕릉형성설계력량을 무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개건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동명왕릉이 주체82(1993)년 5월에 웅장하게 개건되였다는 강사의 이야기

동명왕릉내부를 돌아보고있는 관광객

를 듣느라니 일행은 어느덧 릉앞에 이르렀다.

관광객들은 푸른 잔디를 입힌 방대한 크기의 릉과 고구려당대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돌상과 돌등 그리고 범조각상, 문관 및 무관조각상들과 그들이 타던 말조각상들, 그밖의 망주석과

동명왕릉은 주체93(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돌화로를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한 청년이 함께 온듯한 친구에게 《저길 좀 봐. 동쪽에는 문관, 서쪽에는 무관들을 배치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을 아는대로 말해볼수 있겠나?》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저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할가 하고 귀를 강구었다.

《허, 이 친구 누굴 시험쳐보는건가? 한쪽에는 동명왕을 받들어 고구려를 세운 오이와 마리, 송양, 재사이고 다른쪽에는 동명왕대와 그다음 왕대에 걸쳐 갓 건국한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고 령토를 넓히는데서 용맹을 떨친 장군들인 부분노와 부위염, 묵거, 무골일세.》

마치 력사책을 쭉 내리읽는듯 입가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그 청년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저저마다 탄성을 울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행은 릉의 웃단에서 계단을 내려 아래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동쪽에는 한자로 쓴 《고구려시조동명성왕비》와 《고구려시조동명성왕기적비》가 각각 우리 말로 된 해설비들과 함께 세워져있었고 서쪽에는 제당건물이, 남쪽에는 릉문이 배치되여있었다.

강사는 《고구려시조동명성왕비》는 1193년에 고려시기의 대학자이며 문장가였던 리규보(1168년-1241년)가 동명왕을 칭송하여 쓴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을 그대로 새겨넣은것이고 《고구려시조동명성왕기적비》는 1432년에 당시의 대문호였던 윤회가 쓴 동명왕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새겨 세운 비라고 해설하였다.

일행은 동명왕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릉사도 돌아보았다. 이곳은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고구려시기의 절간이였는데 릉을 발굴하고 주변의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옛 정릉사의 터자리도 찾게 되였다고 한다. 기둥을 박았던 자리들이 력력한 옛 정릉사터는 그 주변에 그대로 보존되여있었다.

력사의 풍파속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동명왕릉.

진정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동명왕릉은 조국인민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세계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조선의 우수한 건축술과 유구한 전통을 보여주는 장소로 되고있음을 우리는 실감할수 있었다.

동명왕릉을 참관한 관광객일행은 귀로에 올랐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평

백두산 (3)

백두산의 특이한 동식물들

백두산지구는 아시아대륙과 륙지로 련속된 고산지대로서 엄혹한 기후와 고유한 지질 및 지리적자연환경에 적응한 특이한 동식물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이 지구의 동물로서는 고산지대의 환경에 적응한 새류와 짐승류가 우세하고 파충류와 량서류는 매우 적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류는 비교적 많지만 원구류는 극히 적은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백두산지구의 지사학적과정과 생태적환경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이 지구에는 마리수가 적고 희귀하면서도 특별히 보호할 리로운 동물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짐승들은 검은돈, 수달, 사향노루, 큰곰 등이다.

이 지구는 겨울철기온이 매우 낮고 먹이조건이 불리한것으로 하여 사철새와 겨울새가 매우 적고 여름철에는 살이터환경이 다양하고 유리해지는것으로 하여 여기에 여름새들이 많이 찾아와 번식한다. 또한 백두산지구는 광활한 백두용암대지를 포괄하며 새류의 활동성과 계절적이동성이 큰것과 관련하여 새류상의 지역적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산림이 울창한 대밀림지대인 백두산지구에는 산림해충을 먹고 사는 새류를 비롯하여 쥐를 잡아먹는 새류, 자연풍치를 돋구는 새류 등 리로운 새들이 많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류인 삼지연메닭, 대홍단메닭 등과 백두산지구 특별보호대상 새류인 메닭, 세가락메추리, 북올빼미등이 많이 서식하고있다.

백두산지구에 분포된 파충류는 산림성파충류가 기본을 이루며 고산성파충류는 매우 빈약하다. 량서류상도 오직 북방형계통으로 구성되였으며 산림성량서류가 기본이고 고산성량서류는 빈약하다.

백두산지구의 물고기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최상류수역에 분포서식하고있다. 원래 백두산천지에는 몇종의 식물성떠살이생물들과 수서곤충들이 살고있었을뿐 물고기는 없었다.

주체49(1960)년 7월 처음으로 삼지연의 붕어와 두만강의 산천어를 백두산천지에 옮기는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 붕어, 산천어, 참붕어, 버들치, 종개 등을 이식방류하였다.

현재 천지에는 천지산천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자라고있다.

백두산지구의 무척추동물상은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과 산악빙하 등과 같은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종구성과 분포모습이 부단히 변화되였다.

백두산지구는 다양한 식물상을 이루고있다.

겉씨식물은 종수는 적으나 백두산지구 식물상형성에서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이깔나무, 좀이깔나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백두산지구의 식물상에서 특이한것은 비교적 분포속도가 빠른 식물종수

백두산의 두 계절

백두산의 가을

백두산천지
동식물의 일부

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식물상에서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사스레나무, 두메오리나무 등 아한대성나무요소들은 산림형성의 기본수종으로 되고있다.

매저지나무, 들쭉나무, 백산차 등의 아한대성떨기나무종류들은 키큰나무사이사이에서 군락을 이루고있다.

7~8월이 되면 백두산기슭에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흰색, 노란색, 연분홍색, 보라색의 꽃들이 한꺼번에 피여난다. 향기를 풍기며 제일먼저 아름답게 피여나는 만병초는 백두산의 엄혹한 눈속에서도 억세게 자라는 기상을 보여주는 백두산의 꽃, 백두산의 특산식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백두산의 산림한계선인 2 000m아래에는 태고연한 대원시림이 끝없이 펼쳐져 말그대로 천고밀림의 바다를 이루고있다.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백두산의 식물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수림대, 떨기나무림대, 고산초원대, 지의대순위로 바뀌여진다. 그런데로부터 혜산을 떠나 백두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온대로부터 아한대를 거쳐 한대지방에 이르기까지의 식물들을 거의다 볼수 있다.

삼지연으로부터 무두봉에 이르는 해발높이 1 600m아래에는 바늘잎나무들과 넓은잎나무들이 울창하다. 무두봉일대는 한대성수림과 고산초원대의 점의지역으로서 식물구성이 대단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백두산지구 동식물의 일부

백두산특별보호구의 동식물들인 백두산조선범, 백두산만병초, 천지산천어, 백두산들쭉, 소연지봉소나무, 삼지연메닭, 삼지연사슴, 삼지연누렁이, 삼지연이깔나무, 남포태산왕대황들이 학술적 및 경관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 보호되고있다.

백두온천

백두온천과 탄화목

백두온천

백두온천은 천지의 땅속에 있는 암장방으로부터 분리되여나오는 뜨거운 화산성가스에 의하여 형성된 온천이다.

백두온천은 주체73(1984)년 1월 21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에 의해 발견되였다.

온천의 광물질총량은 2.3g/L, 유리탄산은 382.80mg/L, 메타규산은 294.68mg/L이다. 주요이온성분들은 나트리움이온과 수소탄산이온이며 이밖에 류산이온, 염소이온이 약간씩 들어있다. pH는 7.2, 최대온도는 약 73℃, 평균온도는 53℃이다.

백두온천은 천지호안을 따라 띠모양으로 놓여있다. 용출구역은 비교적 강한 구역과 약한 구역으로 가르는데 강한 구역에는 3개의 뚜렷한 용출구가 있다.

탄화목

탄화목은 화산지대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화산쇄설물들에 묻혀 탄화되여 형성된다. 백두산지구에서 탄화목들의 절대년대는 A.D. 1120년, 1150년, 1170년이다. 탄화목들은 소백수계곡, 대각봉, 백두다리계곡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있다. 해발높이 2 300m계선의 언덕과 골짜기들에도 나무나이가 약 400년인 탄화목들이 있다.

백두산지구의 탄화목은 주체86(1997)년 3월 국가천연기념물 제517호로 등록되여 보호되고있다.

부식층에 묻힌 나무와 탄화목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혁주

상식

김치

김치는 조선인민의 식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김치는 민족음식들가운데서 가장 력사가 오래고 대표적인 음식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들은 추운 겨울이면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시원하고 찡한 김치국물에 국수를 말아먹는것을 제일로 여겼을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들이고 입맛을 돋구는데도 김치를 으뜸가는 음식으로 여겨왔다.

이미 삼국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식생활에 리용하여온 김치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다종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다양한 종류의 남새가 재배되면서 배추와 무우, 오이, 미나리, 갓 등의 남새와 산나물을 기본재료로 하고 여기에 고추, 파, 마늘, 생강과 파일, 물고기, 젓갈 등을 종합적으로 섞어 김치를 만들어먹었다.

김치는 시원하고 찡하며 상쾌한 맛과 붉고 투명한 빛갈, 사람의 구미를 돋구어주는 향취로 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한번 담그어 한겨울동안 먹을수 있는 겨울김치도 좋지만 조국에 흔한 남새와 산나물로 봄, 여름, 가을 그때그때 담그어먹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김치는 좋은 부식물로 된다.

김치는 그 맛이 좋은것은 물론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조선의 김치담그기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뿐 아니라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였다.

*　*　*

명화가의 가문을 더욱 빛내인 김응환

김응환(1742년-1789년)은 18세기후반기에 활동한 이름있는 화가이다.

그의 가문은 손자, 사위, 조카를 비롯한 일가친척들이 도화서의 화원으로서 당대의 이름높은 명화가가문이였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그는 일찌기 도화서 화원이 되였다.

그의 그림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어느날 그는 한사람으로부터 이웃나라의 풍경화를 한폭 모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였다.

《이보라구, 요샌 저기 이웃나라들의 풍경을 모사하는것이 류행이라는데 내게도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줄수 없겠나?》

《그게 그렇게도 정 소원이오이까?》

김응환은 아니꼬운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아따 이 사람아, 요즘은 그게 류행일세. 한다하는 량반가문들에는 요새 그게 있어야 금사가 나간다는것을 모르나?》

엉치까지 들썩이며 너스레를 떠는 친구의 말에 김응환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럼 한번 두고 가보게나.》

그런 부탁을 여러번 어긴지라 김응환은 이번에는 더이상 밀막을수 없어 그가 내미는 비단폭을 그대로 받아두게 되였다.

손님이 돌아간 후 비단폭을 펼쳐든 김응환의 생각은 자못 복잡하였다.

생각해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였다.

김응환은 그 사람이 두고간 값진 비단필우에 정녕코 이웃나라의 풍경을 그릴수가 없었다.

(이 비단은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녀인들이 짠것이거늘 응당 그우에 그려지는 풍경도 내 나라의것이 되여야 한다.)

김응환은 깊이 생각하던 끝에 비단필우에 자기가 늘 보아오던 고향의 산이며 바위, 강, 초가집들을 조선화의 간결한 기법과 담담한 색채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펼쳐놓았다.

이것이 그의 대표작으로서 유명한 《수륙만리》이다.

《수륙만리》는 내용의 폭이나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작품들중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다.

한없이 맑게 개인 하늘과 더불어 바다가 저 멀리로 기암절벽이 뻗어나간 기묘하고도 장엄한 대자연.

창끝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큰 산들, 그것을 감돌아 골짜기짬으로 빠져 흘러드는 강줄기의 물가에 세운 집과 다락, 나무다리, 바위와 절벽을 에돌아 푸른 솔숲을 지나 꼬불꼬불하게 뻗어올라간 산길, 멀리 바다우에는 마치도 유유히 떠가는 구름송이들마냥 닻을 내린 수십척의 흰 돛배들이 둥둥 떠있다.

이 그림은 화가의 높은 구상력과 세련된 필치, 풍부하고 다감한 예술적정서를 잘 반영한 특색있는것이다.

단 며칠만에 그처럼 큰 화폭을 그렸으니 김응환의 정력은 참으로 놀랄만한것이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림이 나온지 근 10년이 흘러 어느날에는 김홍도, 리인문 등 젊은 화가들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하여 일부러 모여앉았다고 한다.

김응환은 일생동안 강조하기를 화가에게 있어서 사실주의적묘사는 일차적요구로 나서며 그림의 가치는 오직 그 실제성에 의해서 평가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리정연하고도 강직한 그의 미학관이였다.

그 미학관은 곧 그의 제자들에게 심어졌으니 사실주의인물화에서 손꼽히는 김홍도나 김득신 등의 명성을 결코 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김응환은 그림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림으로 이름을 남겼으나 아쉽게도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못하였다.

김응환은 사실주의적인 미학관이나 창작태도에서 당시의 다른 화가들보다 한걸음 앞선 선진적인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강 서 사

강서사는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에 있는 고려시기의 절이다.

처음에는 령은사라고 부르다가 고려시기에 례성강의 서쪽에 있는 절간이라 하여 강서사라고 고쳐 부르게 되였다. 절간을 처음 세운것은 고려초엽이며 그후에 만세루를 비롯한 여러채의 부속건물들이 더 세워져 크게 확장되였다.

강서사는 그후 여러 차례 불타서 다시 세우군 하였다. 지금은 1665년에 다시 지은 대웅전과 한채의 승방, 고려때에 세운 7층, 5층돌탑과 비석 등이 남아있다.

강서사의 대웅전은 정면 5간(16m), 측면 3간(8. 62m)으로 된 합각집이다.

건물의 전반이 금단청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여있다.

겹처마로 된 합각지붕은 룡마루가 길고 량쪽의 박공면도 크기때문에 건물의 위용을 돋구어주고있다.

대웅전의 문은 본래 련꽃, 매화, 국화 등을 뚫음새김한것이였다.

건물안에는 높다랗게 소란반자와 빗반자를 대고 널마루를 깔았으며 뒤의 내부기둥들에 의지하여 큼직한 불단을 만들고 그우에 닫집을 달았다.

건물의 내외부에는 룡, 봉황, 학, 사자, 산수화 등 여러가지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형상이 독특하고 기법이 우수하다. 특히 내부정면에 그린 6마리의 봉황새는 련꽃을 둘러싸고 맴도는것을 형상하였는데 우아하고 부드러워 마치 살아움직이는것같다.

강서사 대웅전은 건축미로서뿐 아니라 당시의 단청의 특색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　*　*

강서사 5층돌탑

전설

《금강산팔선녀》

예로부터 조선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으로 손꼽히고있는 금강산은 아름다운 전설을 수많이 낳았다.

그중에는 외금강의 상팔담에 깃든 《금강산팔선녀》전설도 있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한 나무군총각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 마음씨 어질고 부지런한 총각은 아름다운 금강산을 사랑하였다.

어느날 산에 나무하러 갔던 총각은 사냥군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원해주었다.

사슴은 자기를 구원해준 총각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상팔담에 한번 가보라고 하였다.

새벽에 집을 나선 총각은 팔담으로 향하였다.

하늘중천에 비단필을 드리운것처럼 아슬한 벼랑우에서 세찬 물줄기가 쏟아져내리고 자욱히 일어나는 뽀얀 물안개가 여기저기 솟아있는 기묘한 바위들을 감싸안고 부드럽게 맴돌았다.

총각은 장엄하게 쏟아져내리는 폭포수를 줄곧 바라보면서 옆으로 에돌아 한발두발 톺아 상팔담에 이르렀다.

눈앞에 펼쳐진 여덟개의 맑은 못둘레엔 난생처음 보는 어여쁜 꽃들이 활짝 피여 향기를 뿜고 구름이 낮게 떠돌았다.

이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바람결 또한 싱그러웠다.

아침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여덟개의 못은 형언할수없이 아름답고 정가로왔다.

금강산의 황홀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하늘에서 은은한 거문고소리가 들려오더니 여덟가락의 무지개가 여덟개의 못에 내리였다.

총각에게도 향기롭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긴 날개옷자락을 훨훨 저으며 무지개를 타고내리는 선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총각은 한 바위뒤에 몸을 숨겼다.

이윽고 선녀들은 못을 하나씩 차지하더니 어깨에 걸친 긴 날개옷과 하늘옷을 벗어서 못가의 꽃나무가지들에 걸어놓고 미역을 감기 시작했다.

총각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선녀들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언제 봐도 금강산은 아름답지요.》

한 선녀가 하는 말이였다.

《날마다 한번씩 왔으면 좋겠네.》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에 이어 여러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쟁쟁하게 울려퍼졌다.

선녀들은 모두 물에서 나와 하늘옷을 떨쳐입고 금강산의 경치에 취한듯 흥겨운 춤판을 벌렸다.

상팔담의 맑은 물에 선녀들의 춤가락이 곱게 비끼였다.

총각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괴춤에서 옥피리를 꺼내였다.

청아한 피리소리가 하늘가에 울려갔다.

선녀들은 피리가락에 맞추어 더욱 흥겹게 춤을 추었다.

얼마후 시간이 흘러 하늘에서 찬란한 무지개가 상팔담으로 뻗어내렸다.

선녀들은 바삐 서둘며 꽃나무가지에 걸어놓았던 긴 날개옷들을 어깨에 걸치고 금강산을 아쉬운듯 둘러본 다음 무지개에 올랐다.

그런데 이때 막내선녀만은 꽃나무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언니들! 내 날개옷이 없어요. 날개옷이 없어요.》

막내선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금강산골안에 메아리쳤다.

일곱선녀도 막내선녀를 애타게 불렀으나 무지개에 실린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다.

막내선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해는 이미 서쪽 봉우리우에 올라앉았다.

얼마후이면 이곳에도 어둠이 깃들것이 분명하였건만 선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총각은 선녀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숨어있던 바위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선녀는 깜짝 놀랐다.

《놀라지 마시오. 나랑 함께 날개옷을 찾아봅시다.》

총각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못가를 살살이 돌아보았다.

선녀는 총각의 성실하고 착해보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소 놓이는듯 나직이 물었다.

《고마와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지요.》

총각은 금강산에 사는 나무군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다.

선녀는 총각에게 자기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수 없다고 말하였다.

총각이 래일 아침 선녀들이 날개옷을 한벌 가져올것이라고 위로하였다.

그러자 선녀는 아니라고, 매달 보름만에 한번씩 여기로 내려오게 되여있다고 하면서 날개옷을 잃은것을 안다면 하늘임금이 크게 노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니나다를가 갑자기 하늘에서 와르릉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총각은 의지가지할데 없는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선녀는 총각의 집에서 지내면서 류다른 체험을 하였다.

하늘에서 인간세상에 내려온 선녀인지라 처음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나 날이 감에 따라 점점 간격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말도 주고받았다.

선녀는 총각과 그의 어머니를 도와 밭일도 하였고 천도 짰다.

그리고는 총각과 어머니에게 새옷도 지어주었다.

어느새 정이 든 총각과 선녀는 가정을 이루게 되였고 자식들도 태여났다.

그러던 어느날 총각은 자기가 구원해주었던 사슴을 만났다.

사슴은 자기가 선녀의 날개옷을 숨겨놓았다고 하였다. 사슴에게서 그 위치를 안 총각은 날개옷을 선녀에게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사슴은 아이를 한명 더 낳아 세 자식이 생길 때까지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여러해가 지난 후 총각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었다.

선녀가 날개옷을 걸치자 옥황상제는 바람을 일으켜 아이들을 안은 선녀를 하늘로 데려갔다. 사슴의 당부를 지키지 못한 실책으로 안해를 잃은 나무군은 가슴을 태우며 선녀를 그리워하였다. 어느날 구슬피 울리는 나무군의 피리소리를 듣고 사슴이 나타났다. 사슴은 나무군에게 이제는 선녀들이 금강산 상팔담의 물을 드레박으로 퍼올려 목욕을 하는데 그때 드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운 안해와 아이들을 만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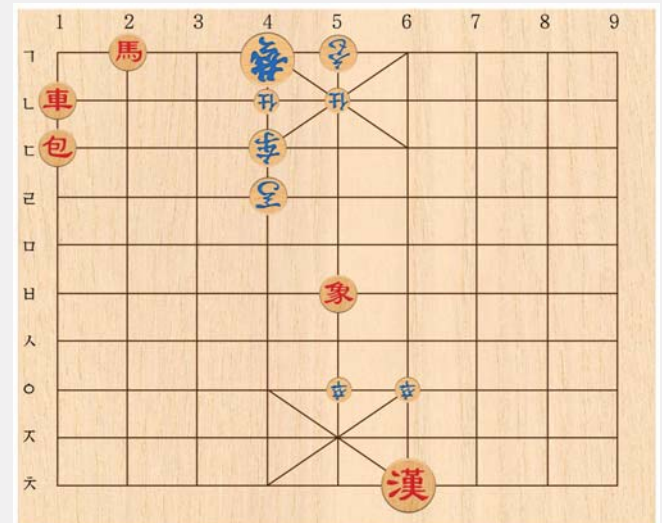
그러나 나무군은 나서자란 정든 금강산을 떠날수 없었다.

한편 하늘에 오른 선녀는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나무군총각과 만나 행복하게 살던 그날을 잊지 못해하다가 일곱명의 선녀들의 도움으로 금강산으로 내려오게 되였다. 하여 나무군과 선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금강산팔선녀》전설뿐 아니라 명산의 경치를 형상원천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여 전하여오는 많은 금강산전설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 * *

장기수풀이 (20)

장기격언

면마는 겹마

면선에 놓이는 말은 겹마로 되여야 공격과 방어에서 유리하다는 뜻이다.

진꾸리기단계에는 말이 면으로 나가는 경우 겹마로 되여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를 꾸밀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이 겹마를 차야 큰 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19)에 대한 답

ㅂ6상ㄹ3, ㄴ5차ㄴ4, ㄷ7차ㄱ7, ㄱ5궁ㄴ5, ㄱ3차ㄱ4, ㄴ4차ㄱ4, ㄱ7차ㄴ7, ㄴ5궁ㄱ6, ㄴ7차ㄴ6, ㄷ6사ㄴ6, ㅁ6말ㄷ7,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3대명필

우리 나라의 3대명필로는 김생, 한호, 김정희를 꼽는다.

중세시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김생(711년-?)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여 80살이 넘도록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 글을 썼다고 한다.

산속의 석굴에서 40여년간이나 나오지 않고 글을 썼는데 그 산에서 떨어지는 모든 가랑잎에는 그의 글씨가 씌여지고 비에 의해 씻겨진 먹물이 강으로 흘러 물의 색을 꺼멓게 흐려놓았다고 한다.

예서, 행서, 초서 등 여러가지 글씨체에 모두 능한 그는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고 후세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예가인 한호(1543년-1605년)는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으나 생활난으로 땅바닥이나 돌우에 글을 써보면서 재능을 련마하였다고 한다. 한호의 자는 경홍 호는 석봉, 청사이다.

비상한 정열을 지닌 그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있는 서예가들의 글씨를 익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던지 글씨련습을 하던 송악산골짜기에는 먹물이 흘러 《먹적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다.

어머니가 깊은 밤 등불을 끈 방에서 썬 떡을 보고 한호가 다시 글씨공부하러 산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그의 글씨는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을 찾아 내달리는듯》 기백이 있다고 하였다.

한호의 글씨는 당시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김정희(1786년-1856년)는 한호와 쌍벽을 이루는 서예가였다. 그의 자는 원춘, 호는 완당 또는 추사이다.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만든 그는 력사와 천문, 지리학, 음악 등에도 조예가 깊고 그림과 서예에도 능했다.

그는 서예창작경험과 선행서예에 대한 깊은 연구에 토대하여 서예에 관한 기초리론과 서예기법에 관한 적지 않은 글들을 남기였다.

* * *

상식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바둑

바둑은 수천년의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처음에 바둑은 원시사회에서 점치는 도구로 원시문화의 창조물과 함께 태여났다.

고대사람들은 우주는 둥글고 땅은 평평하여 모가 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원시적인 자연관은 그대로 바둑판과 돌에 표현되였다.

평평하고 네모난 바둑판은 땅을 상징하고 네개의 구석은 지구상의 사계절을 나타내고있으며 361개의 교차점은 1년을 뜻하고있다.

땅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은 바둑판의 중심을 우주만물의 핵 즉 태극으로 비유하여 《천원》이라고 불렀다. 하여 오늘날의 바둑판의 중심점도 천원점이라고 되여있다.

바둑돌이 원형인것은 우주를 상징하고있으며 검은돌은 밤을, 흰돌은 낮을 표현하고있다.

바둑은 고조선시기에 이르러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지능민속오락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등장하게 되였으며 봉건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준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바둑이라는 말자체는 고유한 조선말이다.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연한 논밭을 보고도 바둑판에 비유했고 바둑판과 같은 문양을 새긴 바둑무늬천을 짰다.

이처럼 바둑은 우리 나라의 원시문화와 함께 첫걸음을 떼였으며 천문관측기구로부터 오늘은 지능대결경기종목으로 발전하여 현대의 체육종목에서 자기의 모습을 시위하고있다.

* * *

《금강산》 개성고려인삼화장품

《금강산》개성고려인삼화장품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고 30여종의 천연식물추출물과 생물공학적유효성분들을 첨가한 다기능성영양화장품이다.

화장품은 영양성분과 약효성분이 뛰여나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로화를 방지하며 피부탄력강화, 미백작용, 주름방지, 보습효과가 뚜렷한것으로 하여 녀성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물크림
살결물 (보습성)
미백영양물
크림
밤크림
금강산합작회사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계동의 칡꽃/리춘

ㄱ-24088019483